

다산포럼

나라 곳간과 미래 비전, 누가 맡아야 하는가



주운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신설된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요 업무는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리다. 국가의 곳간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막중한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 갖춰야 할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이렇게 답했다. GPT는 “국가의 미래를 현재의 유흥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숫자를 다루는 윤리적 전략”과 “국가의 미래를 현재의 유흥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숫자를 다루는 윤리적 전략”을 제시했다. 제미나이는 “숫자라는 권력 뒤에 숨지 않는 책임감”을, 클로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력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답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의 덕목으로 공렴(公廉)을 강조했다. 공렴은 공정과 청렴으로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일하고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행정을 펴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 싸우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라, 오천백삼십 만 국민의 곳간을 책임지고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에, 정치인의 덕목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깝다.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보좌관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사적 심부름, 위장 미훈을 통한 아파트 편법 정약과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의혹, 조부의 훈장을 앞세운 자녀의 사회기여 입학 논란까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쏟아졌다. 더욱이 내란 직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탄핵 소추가 불법”이라며 내란을 용호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 영훈이 없는 게 아니라, 영훈조차 능수능란하게 갈아 끼우는 모습이었다. 이 분야에 인공지능이 알려준 ‘윤리적 전략’이라는 장관의 기준도, ‘공렴, 책임운리’란 공직자나 정치인의 기준도 모두 무색하다.

우리는 내란을 통해 한 광인의 일탈적 행위만이 아니라 영훈 없는 관료들의 조직화된 무책임이 사회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목도했다. 12·3 내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법기술자에 국가를 맡겨 충분히 엄청난 대기를 치렀다. 숫자에만 능한 경제기술자만으로는 나라의 리더십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엄격한 윤리, 청렴, 공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국가의 방향성, 곳간을 책임질 수 있다.

한국의 공적 신뢰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사회자본, 공적 신뢰가 낮으면 사람들은 장기 이익,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 이익 추구, 각자도생의 사회 속에서 파편화된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 구성원들의 법률과 규범 준수 등이 강화되어야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편법으로 이익을 극대화해 온 사람,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치적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곳간과 나라의 방향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간다면, 국민들이 국가와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나 아파트 청약점수 올리기 위한 편법부터 어떻게든 자식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까? 경제수장의 윤리적 해이, 편법과 특권으로 사익을 최대로 추구해온 삶의 궤적은, 개인의 흡결만이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이후 다시 만난 세계에서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자신들의 본질적 책무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란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위해 내란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는지 초심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이 인사가 보수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한 정치술이었다면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란으로 뒤틀어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패한 인사이다. 이런 인물을 청문회까지 올린 것 자체가 추위에 떨며 냉세력과 싸웠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기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장애 예술교육



최성희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

장애인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 무엇이라 부를까? 장애인 예술 작품, 장애 예술 작품이라 부른다. 그냥 예술 작품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명명법에 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왜 본인의 작품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있어야 하는지 불만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불만이 반갑다. 왜냐하면 언제나 늘 존재하고 있었으나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목소리는 입안에서 중얼대는 독백이 아니라, 혼자 외치는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서로가 마주 보고 같이 이야기 하는 대화의 장에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재했던 목소리는 지난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전시 ‘N개의 발행: 비대칭 각각에 대하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며 새로운 소통의 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광주교육대가 한양대와 컨소시엄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진행한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광주 지역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갈망과 갈증 또한 느낄 수 있었기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인 대상 전문 예술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애 예술인 육성을 통한 포용적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장애 예술가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예술 교육’을 통해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확장되기를 희망하였다.

이 과정을 함께한 신진 작가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14명의 신진 작가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광주교육대에서 전문 창작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문 예술 교육 과정을 밟았고 그 모든 과정을 수료전시에 담아내었다. 2025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는 25년 6월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예비 작가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5명의 예비 신진 작가들을 선발해 6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나는 이 과정의 연구책임자로 지난해 봄 다년간 동일 사업을 진행했던 한양대와 컨소시엄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처음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을 광주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미술교육 전공자로 장애 예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2015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의 전시 ‘코끼리 주름 펼치다’, ‘끼리끼리코끼리’를 공동 큐레이팅한 아래 장애 예술 교육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장애·비장애에 접근성 확장 을 위한 전시 ‘우리의 몸에는 태인이 깃든다’의 전시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광주 지역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갈망과 갈증 또한 느낄 수 있었기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인 대상 전문 예술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애 예술인 육성을 통한 포용적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장애 예술가들이 창작자로서 자기 결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예술교육을 대학 및 지역과의 연계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장애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온도에 맞추어 공론의 장에서 드리게 ‘발화’하는 주체로 살 수 있었다는 점이 반갑다. 더불어 우리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것이라 기대감으로 설렌다.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지팡이 그 만큼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기고

어서와, 인문 특성화 수업은 처음이지?



이정이
광주 동구 인문도시정책과장

겨울방학을 맞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광주 동구인문학당에는 아이들의 한자 드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옥재 아랫목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함께 고사성 어를 읽는데 그 첫 번째 드는 음이 ‘애지중지(愛之重之)’였다.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아이들이 한복소리로 우렁차게 외우는 모습을 보며 ‘그(그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인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아이를 키울 때 “취연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할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인문의 출발점일 것이다. 대상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동구는 3월부터 총장중학교 신입생들과 함께 ‘인문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에는 공·사립을 포함해 모두 6개의 중학교가 있다. 중학교 입학은 졸업하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주소지 인근 학교에 자동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니 구도심, 주택단지 인접 여부, 특정 체육종목 육성 등 학교가 지난 배경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기도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동구는 이러한 불안을 덜고,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문성을 함께 키워보자는 목표 아래 인문특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 총장중 예비소집에 참석한 88명의 예비 신입생들에게 사업을 소개했다. “인문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옆의 친구·가족·이웃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인문”이라는 말은 전문가들이 듣고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차 집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작은 힘을 발견했다.

동구는 2026년 인문특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장중학교에서 이어온 독서교육에 동구정의 시민 대상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접목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인문학적 시도를 이어간다.

먼저 ‘전교생 독서기록장 쓰기’, ‘온·오프라인 독서동아리 책풀기’, ‘매 시간 시작 5분 독서’ 등 기존 독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어 시간에 ‘생활글쓰기 수업’을 편성해 매주 목요일 두 차례, 총 10회 운영한다. 또 음악,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해 보는 ‘미래의 꿈 청소년 인문강좌’를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매년 봄 동구가 주민·전문가의 설문조사와 투표,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올해의 책’ 청소년 부문 도서를 중심으로 작가들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학생들이 도서를 미리 읽고 학교 안

오피니언

社会

계절근로자 브로커 국내외 공조로 균절하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시즌이 돌아왔지만 이들을 등치는 불법 브로커를 균절할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부터 불법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법은 국가·지자체·전문기관을 제외한 어떤 주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알선·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불법 인력증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자격 요건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중개하면서 금품을 뜯는 브로커들이 해외 모집 단계에서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겹거나 차별이 국내 활동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에서 적발된 격차 행위는 모두 국내 브로커에 의해서였다. 9월

해남의 한 조선소에선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40여명이 3억원을 갈취했고 1월에는 완도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들이 1인당 암전 수수료로 400여만원을 뜯겼는데 개정법 시행에도 이런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국내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2만 1000여명이 전남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남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가장 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균절하지 못한다면 일손 공백은 물론 국가 이미지 훼손도 크다.

개정 법안이 브로커들의 국내 활동 차단에만 치중해 있어 해외 모집 단계부터 균절하는 후속 대책이 절실히이다. 대다수 브로커들은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조직이 연계돼 있는 만큼 국내외 공조를 통해 불법 브로커를 균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교복 대란’ 자초해서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네 곳이 신입생들의 교복과 체육복 구매처를 한 곳으로 선정해 논란이다. 보문고·수완고·명진고·진흥고가 논란에 휩싸인 학교다. 이를 학교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을 각각 A와 B업체에서 구매하라고 안내했다.

사실상 특정 업체를 지정한 것인데 문제는 구매 기간이 나흘에 불과해 4개 학교 신입생 11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구매 대란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현장을 찾은 학부모 가운데는 “번호표도 없이 5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치수도 재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복사통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간다.

학생 1인당 교복과 체육복 구매 비용이 33만여원으로도 도합 3억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데 대해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배밭에선 간은 고지 말라’는 말이 있다.

맡았어야 했다. 특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에서 빚어졌다는데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교복 수치를 측정하는 경우도 많는데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업체를 찾아가게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별로 방문 일자를 분산시키는 융통성도 보이지 않았으니 학교 측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물량 몰아주기로 인한 특혜 논란 외에 개학식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지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교육청은 특혜 논란을 낳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물량 몰아주기기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특히의혹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귀찮으니 한 곳에 맡겼다’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적신호로 바뀐 건널목을 허둥지동 건너는 할머니’ 섯던 차량들 빨빨대며 지나가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급한 하녀가 목청껏 애단친다/ 나도 시방 중요한 일 땜에 급한 거여/ 주저앉은 채 당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뭔 중요한 일 있느냐는 더 큰 목청에/ 쥐지 못한 막내 놈 밤해주는 거/ 자슥 밤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여?…’ 〈베히주리 간다·유안진〉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밥심’으로 사는 게 한국인이고 종묘한 순간에는 밥, 쌀이 빼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일이면 흰쌀밥을 먹는다. 저승에서 굶지 먹는다. 죽어서도 먹는다. 저승에서 굶지 않기를 기원하며 맘자 입에 쌀 한 솥 넣어 준다. 저승사자에게 사잣밥을 대접하며 제사상에 정성껏 차린 밥을 올린다. 세금도 쌀로 버쳤다.

그 쌀이, 그 밥이 달라진 지 오래다. 국가에서 최종 발표한 ‘2025년 양곡 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55.8kg) 대비 1.9kg(3.4%)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1984년(130.1kg) 이후 늘어난 적이 없

시기겠다며 정부가 46만 t이 넘는 쌀을 시키겠다며 정부가 46만 t이 넘는 쌀을 시키겠다며 시민에게는 이후부터 오름세다. 정부는 격리 기로 했던 쌀 10만t을 보류하겠다고 최근 방침을 변경했다.

농민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비료값·농자재값·인건비 등 폭등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밥 한 그릇당 100g에 300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다. 사역은 소비자들도 모를 리 없다. 쌀값은 이제야 올랐는데 다른 것이 더 올라서 걱정인거다. 농민 마을을 헤아리면서 소비자 마음을 살피는 일,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김자 사회부장 dok2000@

光州日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tbl_r cells="3" ix="4" maxcspan="